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2월 교육 내용	04
❁ 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2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2월 위드 포토	54
❁ 2월 추천도서	56
❁ 2월 위드스티커	57
❁ 2월 교육활동지	59



2월 교육내용 이삭 & 하이캡틴



암송 구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세기 26:28-

♥첫째주♥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7)

*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둘째주♥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22)

*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양보할 수 있어요.

♥셋째주♥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세기 26:28)

*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어요.

♥넷째주♥

“렛츠고 캡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예요.

실천 내용

1. 이삭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2. 봄맞이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기



Memory Time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째주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암송구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7

♥ 오늘의 주제 :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4:1-27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 말씀 나눔

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셨나요? (7절)



②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날 때 어떤 동물과 함께 갔나요? (10절)



★ 교육활동 - “나의 꿈”

- ① 내가 되고 싶은 꿈이나,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그려보세요.
- ② 그린 그림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설명해요.
- ③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 암송구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 창세기 24:7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 창세기 24:1-27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삭의 신부를 고르는 일도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어요.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낙타를 끌고 떠났어요.

종은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물 곁에 있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겠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종은 물을 부탁했고, 그 여인은 물을 주었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주었어요.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며 신부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의 신부를 예비하셨고,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보다도 앞서가셔서 인도하고 계세요.

Q 1 내가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눠 보세요.



Pray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요.

GOD'S TIME1 첫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7:1-29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2.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4. 그러나 바로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6.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나요? (2절)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데리고 오셨나요? (6절)

① 이집트 ② 저멀리 ③ 모압땅 ④ 이방땅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과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한다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과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신 것처럼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통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내가 되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8:1-18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그 때에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다.
8.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대에서는, 낫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9.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0.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놋으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11.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12.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13.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14. 그 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 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주둔군 : 일정한 지역을 방어하는 군대

with
관찰

1.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몇 명을 물리쳤나요? (13절)

- ① 만 오천 명 ② 만 육천 명 ③ 만 칠천 명 ④ 만 팔천 명

2. 본문에 등장하는 왕과 나라를 알맞게 연결해보세요. (7-14절)

- | | | | |
|--------|---|---|------|
| 소바 왕 | • | • | 도이 |
| 이스라엘 왕 | • | • | 하닷에셀 |
| 하맛 왕 | • | • | 다윗 |

with
생각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얻은 물건들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지요. 이후에도 다윗은 어디서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9:1-13 “은혜는 흐르는 것이예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8.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9.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10.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11.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 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2.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13.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므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6절)

2. 므비보셋은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나요? (8절)

- ① 죽은 고양이
- ② 죽은 개
- ③ 죽은 양
- ④ 죽은 말

with
생각

므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은 자신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므비보셋은 은혜를 베푸는 다윗으로 인해 귀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예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지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0:1-19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2.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3.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경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4.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5.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6.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훅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이만 명과, 마야가의 왕에게서 천 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만 이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7.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고인 : 죽은 사람

조의 : 남의 죽음을 슬퍼함

조문 사절 :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사람

with
관찰

1. 암몬 왕 하눈에 의해 수치를 당한 다윗의 사절단은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야 했나요? (5절)

--	--	--

2. 암몬 사람들은 다윗과의 전투를 위해 용병을 고용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누구를 불러 전투부대를 출동시켰나요? (6-7절)

- ① 요한 ② 요셉 ③ 요나 ④ 요압

with
생각

암몬 왕 나하스와 동맹 관계였던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나하스의 아들 하눈을 위로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눈은 다윗이 자신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살펴보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수치를 주어 돌려보냈지요. 결국 하눈과 다윗은 전쟁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의심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결과였지요.

with
결심

우리도 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구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친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친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나의 기도 :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 창세기 26:28 -





Memory Time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둘째주

♥ 주제 : 이삭 & 하이 캡틴

♥ 암송구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22

♥ 오늘의 주제 :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26:2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양보할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6절)



②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삭을 미워해서 우물을 막게 되었나요? (14절)

“○과 ○가 떼를 이루고 ○이 심히 많으므로..”

③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0-22절)

○ 사, 사 나, 리 흥 비

★ 교육활동 - “식용유에 물 섞기”

빈 물통에 식용유를 넣고 물을 섞어보세요. 처음엔 섞이는 것처럼 보여도 식용유와 물은 섞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장애물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암송구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2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양보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26:12-25

이삭을 부러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빼앗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며 이삭의 우물을 막고 또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조용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물이 샘솟는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은 왜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지 않고 우물을 넘겨주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주셨지요.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양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Q 1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을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Pray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곳곳이 이겨내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with
말씀

사무엘하 11:1-27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 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3.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4.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5.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6.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서, 헛 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7. 우리야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8.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야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9. 그러나 우리야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포위: 주위를 에워쌌

전갈: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거나 안부를 물음

with
관찰

1. 우리야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① 밧세바 ② 마리아 ③ 살로메 ④ 한나

2.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요? (5절)

“...자기가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with
생각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를 다시 시작할 때였어요. 다윗은 궁에 남아 있다가 우연히 목욕 중인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을 통하고 말았어요. 그 후 이를 숨기고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에서 불러들였지만, 우리야는 거절했어요. 결국, 우리야는 전투 중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야의 장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대답한 것이지요. 다윗의 범죄는 이후에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죄를 멀리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죄로부터 멀어지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12:1-31 “다윗 왕이 잘못을 고백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12.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13. 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밋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16.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백: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금식: 어떠한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



with
관찰

1. 다윗이 나단에게 무엇이라고 자백했나요? (13절)

“... 내가 주님께 를 지었습니다...”

2. 다윗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6절)

① 폭식 ② 금식 ③ 단식 ④ 절식

with
생각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다윗 왕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다윗 왕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금식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해주셨고, 솔로몬에게 ‘여호와에게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분이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13:1-39 “압살롬이 복수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6.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만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나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27.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28.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29.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30.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31.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32. 그 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시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간청: 간절히 청함

with
관찰

1. 압살롬은 누가 함께 가기를 원했나요? (26절)

“..만형 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31절)

① 옷을 찢었다 ② 물을 마셨다 ③ 잠을 잤다 ④ 여행을 갔다

with
생각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율법을 어기고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증오심에 불타서 복수를 계획했고, 2년 뒤 암논을 크게 혼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족 간에 큰 다툼과 슬픔이 생긴 것이지요.

with
결심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의 잘못은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4:1-33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9.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 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20.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천사 처럼 슬기로우시므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21.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22.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 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충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23.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24.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왕자의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일을 꾸민 신하는 누구인가요? (20절)
① 요압 ② 하나냐 ③ 미사엘 ④ 아사랴

2. 다윗의 명령으로 요압이 데려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21절)

“...가서, 그 어린 아이 을 데려오시오.”

with
생각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요압은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와 다윗 왕을 설득했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다윗 왕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답답했던 압살롬은 피를 내었고, 마침내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요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이 아니었어요.

with
결심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마음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마저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 창세기 26:28 -





2월 셋째주
2021년 2월 21일~27일



Memory Time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셋째주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암송구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나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6:28

♥ 오늘의 주제 :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창세기 26:26-33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어요.

★ 말씀 나눔

① 이삭을 찾아온 그랄의 왕은 누구인가요? (26절)

②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8절)

여호와께서 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 교육활동 - “암송구절 완성하기”

순서를 정해 약속 말씀 카드를 뽑아 보세요.

- ① 성경을 찾아서 암송구절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28)
- ② 활동지에 있는 말씀 조각들을 자릅니다.
- ③ 암송구절 조각들을 종이에 순서대로 맞춘 후, 풀을 사용해 종이에 붙입니다.
- ④ 암송구절 말씀을 외워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암송구절 :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6:28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창세기 26:26-33

이삭은 계속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어요. 그 모습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신하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과 계약을 맺고 싶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삭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00이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듣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Q 1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함께 외쳐보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Pray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5:1-37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지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 그 때에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열 명만 남겨 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그술: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
 전령: 명령을 전하는 사람
 도성: 왕이 평소에 거주하는 궁궐과 그 주위를 둘러싼 성벽



with
관찰

1. 다윗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다윗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요? (10절)

2. 다윗은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14절)

- ① 아들을 찾아가 함께 싸움 ② 화를 내고 왕의 자리를 지킴
③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피함 ④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름

with
생각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어요.

with
결심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겠다는 신앙고백도 했어요.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든 상황에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6:1-23 “비난을 받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이백 개와 건포도 몽치 백 덩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왔다.
 (생략)
5.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6.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7.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 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한당** 같은 자야!
8. 네가 사울의 집안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9.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10.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야,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11.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나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줄곧 : 계속해서

불한당 : 남을 괴롭히는
 것을 자주하는 불량스러운
 사람들

형벌 : 범죄한 사람에게
 주는 벌

with
관찰

1.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는 다윗에게 나귀 몇 마리를 가져왔나요? (1절)

마리

2. 시므온이 다윗을 저주할 때 뭐라고 말했나요? (7절)

- ① “너는 꼭 큰 벌을 받을 거다!”
- ② “당신을 축복합니다”
- ③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여! 이 불한당 같은 자야!”
- ④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with
생각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명은 므비보셋의 하인인 시바이고 다른 한 명은 시므이예요. 시바는 쫓김 당하는 다윗을 위해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 등의 먹을 것을 주었고, 다윗은 이런 시바의 도움을 받아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비난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압살롬에게 쫓겨 어려움을 겪거나 시므이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7:1-29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이예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만 이천 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3.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 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4.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5.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새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 보자고 하였다.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 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7. 후새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8.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공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생략)
14.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새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모략: 남을 해지려고 쓰는 꾀나 속임수

들녘: 들이 있는 쪽이나 지역

노련한: 경험이 많다, 베테랑



with
관찰

1.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천 명을 뽑아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원했어요. (1절)

O / X

2. 후사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획(모략)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7절)

- ① “매우 좋다” ② “잘 모르겠다”
- ③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④ “좋지 않다”

with
생각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을 계획을 알려주었고, 압살롬은 그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사에게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주셨어요. 후사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보다 후사의 계획이 좋다고 생각해서 후사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with
결심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만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18:1-33 “다윗은 자신의 죄를 탕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 그 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 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 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생략)

29.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0. 왕이 "물러나서 곁에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31. 바로 그 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 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32.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 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33.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짚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너그럽게 : 착하게, 마음이 넓고 자비롭게

소동 : 사람들이 놀라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일

다락방 : 주로 부엌 위에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with
관찰

1. 다윗은 요압, 아비새, 잇대에게 압살롬에 대해 어떠한 부탁을 했나요? (5절)
- ① “혼내주세요” ② “때려주세요”
 - ③ “너그럽게 대하여 주세요” ④ “만나면 전화해 주세요”

2.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어떠한 말을 했나요? (33절)

“... 압살롬아...”

with
생각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 압살롬이 패배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압살롬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매우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배반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with
결심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 창세기 26:28 -





Memory Time



렛츠고 캡틴

넷째주

♥ 주제 : 이삭 & 하이 캡틴

♥ 암송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 오늘의 주제 : 렛츠고 캡틴 ▷마태복음 28:18-20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 말씀 나눔

①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무엇인가요? (18절)

○ ○ 과 ○ 의 권세

②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그러므로 ○ ○ 는 가서 모든 민족을 ○ ○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 ○ 를 베풀고”

★ 교육활동 - “캡틴과 함께 떠나요”

준비물: 워드지 뒷면에 있는 배 그림, 가위, 풀, 테이프, 사인펜

- ① 워드지 뒷면에 있는 배와 배 옆면, 배 밑면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② 배의 모양대로 맞추어 풀과 테이프를 사용해 붙여주세요.
- ③ 만든 배에 이름을 쓰고 꾸며도 좋아요.
- ④ 렛츠고 캡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요.
- ⑤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전도여행을 떠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이삭 & 하이캡틴

♥ 암송구절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렛츠고 캡틴 ▶마태복음 28:18-20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능력, 성령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 점점 그 수가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Q 1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에요” 함께 외쳐보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Pray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19:1-4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2.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 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 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3. 그래서 그 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 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4.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5.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 드렸 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 셧습니다.
6. 임금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7.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시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8.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슬픔에 빠진 다윗 왕에게 조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5절)

2. 요압은 다윗에게 어떤 말로 부하들을 격려하라고 했나요? (7절)

① 화평 ② 위로 ③ 분노 ④ 충성

with
생각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왕이 슬퍼하니 반역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군인들의 마음이 어려워졌다며, 밖으로 나가 군인들을 격려해달라고 말했지요.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 행동했을 때, 요압은 다윗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임에도 부하 요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압의 말에 따랐어요.

with
결심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잘못되거나 나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선생님, 친구 등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20:1-26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 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 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 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 드리겠소."
-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둔덕: 언덕

유산: 남겨놓거나 물려주
 신 재산

with
관찰

1. 다윗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21절)

- ① 오바 ② 삼바 ③ 에바 ④ 세바

2. 요압과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을을 지키고 반역을 끝낼 수 있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6,22절)

로운 여인

with
생각

압살롬에 이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윗의 부하인 요압은 세바를 무찌르기 위하여 아벨성을 포위했지요. 그리고 아벨성 옆에 언덕을 쌓아 성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 때 슬기로운 여인이 용기 있게 요압을 찾아 갔어요. “아벨성은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기던 성이니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세바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허락했고, 슬기로운 여인은 세바를 요압에게 넘겼어요. 슬기로운 여인이 용기로 아벨성을 지켜냈어요.

with
결심

반역자를 무찌르기 위하여 아벨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행동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여인은 아벨성이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요압에게 찾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에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21:1-22 “진정한 힘은 하나님뿐이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논이라는 사람이 삼백 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죽였다.
-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아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를 앞다리같이 굽었다.
-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넷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죽였다.
-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어디인가요? (15절)

2.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은 누구
인가요? (16절)

- ① 이스바로눔 ② 예스바로눔
③ 이스비브눔 ④ 예스야스눔

with
생각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키와 몸집이 거대한 거인이 많았고, 힘이 써서 무겁고 날렵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블레셋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with
결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키와 몸집, 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22:1-51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2.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3.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4.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5.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6. **스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덮이 나를 낚았다.
7.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8.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어져서 뒤틀렸다.
9.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튀기면서 달아올랐다.
10.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11.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12.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13.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숯덩이들이 쏟아졌다.
14.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15.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흡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피난처: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소

스울: 지옥

그룹: 천사

with
관찰

1. 다윗은 언제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드렸나요? (1절)
 - ① 모든 원수의 발과 하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 ② 모든 원수의 머리와 바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 ③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 ④ 모든 원수의 배와 다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2.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나요? (2절)

“...주님은 나의 , 나의 ,
나를 분.”

with
생각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 때문에 아주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지요. 매일매일 도망 다니고, 창에 찔려 죽을뻔 한 위기도 있었어요. 다윗은 어려웠지만 자신의 모든 시간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담긴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with
결심

다윗은 모든 시간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다윗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기로 다짐해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아침에 일어난 친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해 주세요.
3. 친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말씀 <시편 1:1-6, 새번역>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날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기와 같다.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야, 좋은 아침이야! 간밤에 잠은 잘 잤니? 잠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보자.

오로지 주님의 율법만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보자. ○○(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오늘을 맞이하자! 화이팅!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해 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밤이나 낮이나 >

_ 레베카 황 _

나의 소망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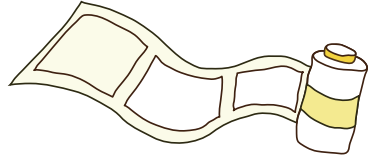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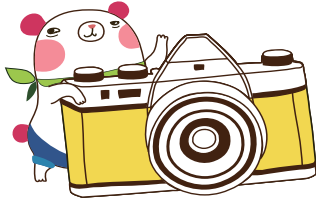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와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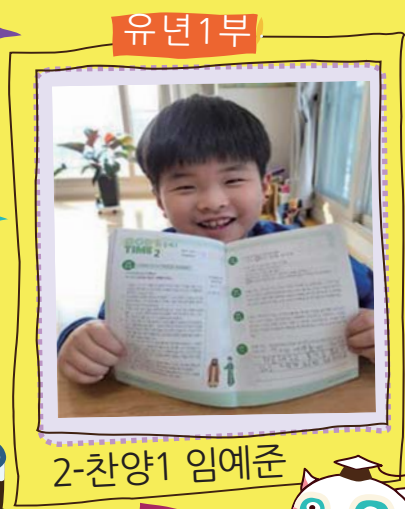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이)가 참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괴롭고 슬픈 일을 겪어도, 힘들고 넘어질 때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해주세요. 이 시간 잠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PHOTO



1-찬양1 김주형



2-찬양1 임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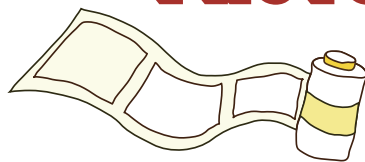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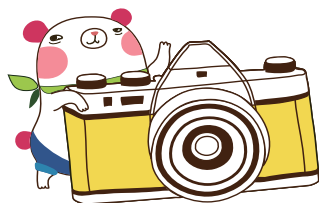


1-2 김리



1-7 이남우

유년의 PHOTO



유년2부



1-9 박채은

유년2부



1-9 장진

유년2부



1-9 허유나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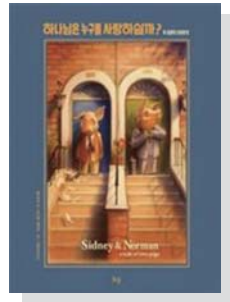


2-11 박류건



2월

제목 :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글 / 필 비셔, 그림 / 저스틴 제라드
 옮긴이 / 정모세
 출판사 / I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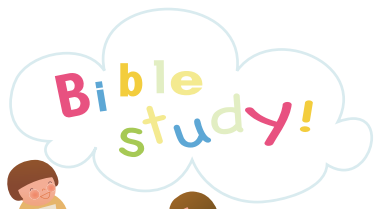


한 동네 옆집에 두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깨끗하고 능력도 있어 완벽해 보이는 '노먼'과 항상 어수선하고 실수투성이에 사고뭉치인 '시드니'가 그 주인공이예요. 노먼은 어딜가서도 칭찬받았고, 상장과 트로피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시드니는 무엇도 잘하지 못하였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굉장히 많았지요.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두 돼지의 집 앞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훌륭한 돼지 노먼은 초대장을 보자마자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실수투성이 시드니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잔뜩 겁을 먹게 되었지요. 초대장에 적혀있던 날짜가 되었고, 노먼과 시드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노먼에게는 설레이는 길이었고, 시드니에게는 떨리는 길이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먼과 시드니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책을 통해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2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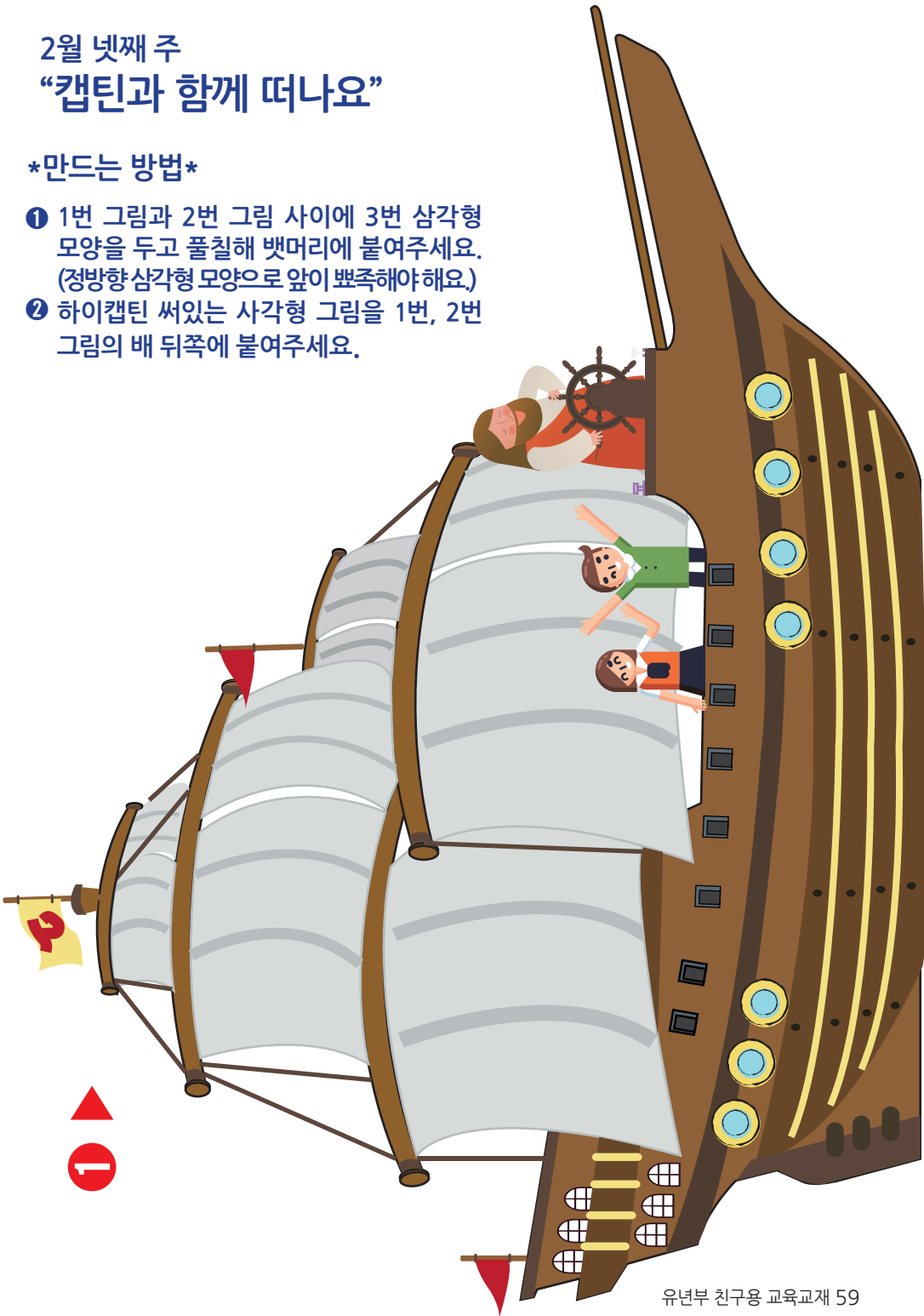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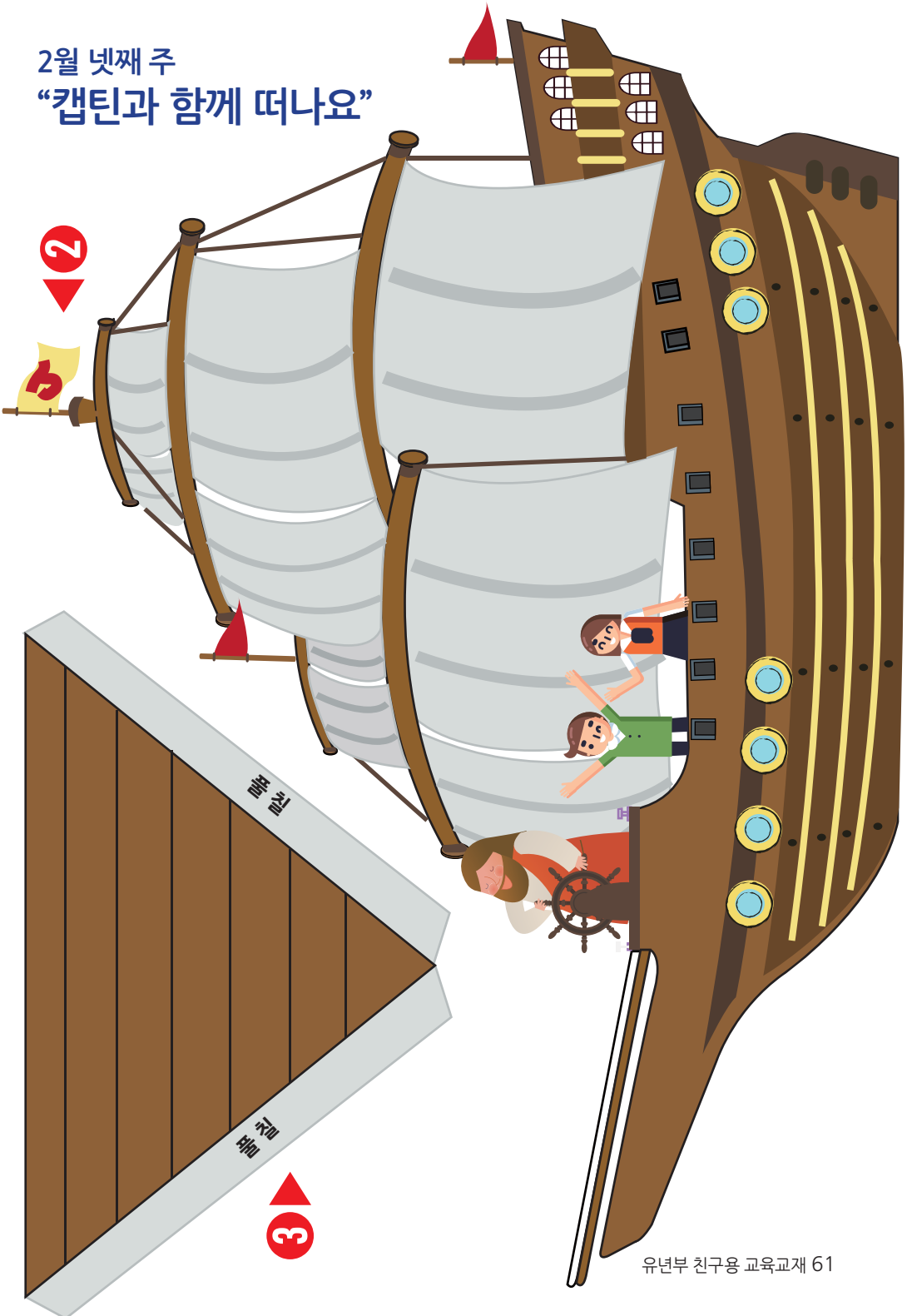
2월 넷째 주 “캡틴과 함께 떠나요”

만드는 방법

- 1번 그림과 2번 그림 사이에 3번 삼각형 모양을 두고 풀칠해 뱃머리에 붙여주세요. (정방향 삼각형 모양으로 앞이 뽀족해야 해요.)
- 하이캡틴 써있는 사각형 그림을 1번, 2번 그림의 배 뒤쪽에 붙여주세요.



2월 넷째 주
“캡틴과 함께 떠나요”



2월 넷째 주
“캡틴과 함께 떠나요”



4

